

불교계 신종플루로 각종 행사 연기

병불런, 조계종 행자교육원 입교 행사 대상 신종플루 예방검진 실시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이하 신종플루)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병원자연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런)는 9월 5일 공주시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37기 행자교육원 입교에 앞서 입교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검진을 실시했다. 또 행사 교육 일정을 23일에서 14일(9월5~18일)로 단축하고, 대중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육방식도 2~4인실로 나눠 생활하도록 했다.

조계종 영축총림 본사인 경남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9월 22일 양산전에서 건국 이래 순국열사와 충의장병, 무주교회를 천도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수륙방생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또한 통도사는 공지사항을 통해



단양보건소 직원들이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 입장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대중 및 참배객의 보호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나 의심이 가는 증상을 가진 자의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지역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9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2009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취소

했고, 직지사·갑사 등 템플스테이 사람들도 일정을 연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6일 열린 '제36회 상월원각대조사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에서 참가자와 입장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대회 당일 단양보건소 차량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동국대는 개강인 9월 1일부터 4일까지 해화문과 후문에서 오전 등교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항균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상록원 등 교내식당과 중앙도서관, 만해관 등에는 손세정제를 설치하는 등 신종플루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신종플루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제태 장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확보 및 투여 방침과 대응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난 8월 2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예방접종이므로 조속히 백신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예방백신 공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후 11월 중순경에 접종을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의료인, 입산부, 학생 및 군인 등을 유행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규모, 전 인구의 27%인 1366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목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sunjo082@naver.com

청와대 여권 인사 불심잡기 행보

박형준 정무수석 통해 MB 난 보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예방

추석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국무총리 내정 및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취임 등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불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9·3 내각 개편에서 '불교계 마당발'인 주호영 국회의원의 특임장관, 국군불교총신도회장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방부장관 발탁 등 '고소영' 색채 탈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8일 신임인사자 예방한 박형준 정무수석을 통해 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이 선출된 날에는 '불광변조 덕포무궁(佛光遍照 德化無窮)'이란 문구가 담겼다. '부처님의 광명은 온 세상에 두루 비추고 그 덕화는 끝이 없다'는 의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를 반갑게 맞고 있다.

이날 예방 자리에서 박 정무수석은 "인사 가겠다고 보고하니 대통령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진관 시민사회비서관은 "주호영 의원이 특임장관을 맡게 돼 일부에서 총무장관이라고도 한다. 앞으로 불교계 소통부재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이라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대통령께는 한번 인사하겠다. 불교계와 정부가 소통 못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 예방에 이어 9월 10일에는 8일 한나라당 당대표직에 취임한 정몽준 대표가 총무원을 예방했다. 정 대표의 총무원 예방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종교계 발걸음으로 예방에는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前국회정각회장과 안홍준 의원(정각회 부회장), 조윤선 대변인 등 불교계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 했다.

지관 스님은 정 대표에게 "불교에는 말을 조용해 이심전심하는 '무설설(無說說)'이 있다. 이심전심으로 서로 이해해 가면 각 분야에 갈등이 없게 하는데 함께 노력하자"며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당부했다.

이날 정 대표는 지관 스님과 30분 가량 비공개 대화를 통해 남북경색 국면해소에 대한 불교계 협조방안 등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노덕환 기자 · 사진=박재현 기자

東大 '불교특성화장학' 불교학부에

2010학년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원 장학 혜택을 받게 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송동진)는 "불교특성화장학"을 신설해 2010학년도 불교학부 신입생부터 전원 장학 혜택을 준다"고 9월 8일 밝혔다.

'불교특성화장학'은 불교학부 신

입생 중 상위 30%는 등록금 100% 면제, 차상위 30%는 등록금 70% 면제, 나머지 40%에게는 등록금 50%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불교이동학과 신입생 일부에게도 동일 혜택이 주어진다.

동국대 측은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불교특성화장학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연골재생기술 개발 25억 지원

동국대 임군일 교수, 교과부 사업 선정

동국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 기반 기술개발사업과 핵심연구사업에서 34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에 동국대 의과대학 임군일 교수가 '무세포이식 연골재생기술 개발'을 주제로 선정돼 매년 5억 원씩 5년간 2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임군일 교수가 선정된 교과부 사업에는 120여 과제가 집중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수도권에서는 15개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와 서울대, 경희대만이 선정됐다.

임 교수가 교과부에 제출한 과제는 세포 이식 없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존 세포 이식을 이용한 연골재생 기술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 교과부가 시행중인 '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은 국가기

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원천 기반기술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등의 전략적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09년도 핵심연구사업'에는 동국대 임중연·임현식 교수가 선정됐다.

'생체지지체의 최적 설계를 위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선정된 임중연 교수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9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임현식 교수는 '스핀 기능을 이용한 저 전력 고속 Si 이종접합 소자 연구'라는 주제로 핵심연구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한편, '2009년도 핵심연구사업'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초연구의 정착과 기초연구역량 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쌀·연탄 나누기

아름다운동행, 추석맞이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이 올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비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사찰과 함께 오는 9월 25일 오전 10시 '추석맞이 아름다운동행 쌀 연탄 나누기'를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추석에 맞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쌀 20kg 700포, 연탄 3만6000장을 지원하며 지역 사찰(서울 조계사, 오산 대각사, 대전 고신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광주 원각사 등)과 협조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에는 아름다운동행이 지원하는 물량 외에도 해당 사찰의 물품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고, 앞으로 쌀 연탄나누기 사업이 정례화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6·15공동선언 등 이행촉구 나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범국민서명운동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는 9월 7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상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으로 국민들의 통일여지를 뜨겁게 모아 낼 것이다"고 전했다.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북미관계는 해빙기로 접어들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경직된 자세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번 운동이 작은 불씨가 돼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을 시발점으로 △ 남북관계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줄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결의안' 통과 호소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성 등을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10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취합된 서명자 명부는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 된다.

현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9주년을 맞은 6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범국민선언대회를 열고 남북공동선언이 평화통일 달성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의 통일선언이라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박선주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km)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인문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한가위 선물 세트 할인판매!

사랑하는 이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곱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아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예쁜 복주머니 팩에 포장해 드립니다.

에어 샴푸 ₩24,000 700g	꿀 바디 샴푸 ₩24,000 700g	젤 클렌징 ₩12,000 150g	에어 트리트먼트 ₩20,000 240g	스킨 ₩25,000 140g	에센스 ₩40,000 50g	파우더 로션 ₩38,000 150g
--------------------	----------------------	--------------------	-----------------------	-----------------	-----------------	---------------------

183,000원 → **80,000원**

105,000원 → **50,000원**

60,000원 → **30,000원**

심청골 무각사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총 판매리점 모집중

http://www.gobdan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곱 단 이** 를 검색하세요
주문 : 무료전화 080-363-8985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곱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제조원 : (주)베타모